

‘아름다운 샘’은 가천길재단 이길여 회장의 호(號)인 ‘가천(嘉泉)’의 순우리말입니다.

02 이모저모

면역항암치료 위한
CAR-T 세포치료센터 개소

03 이모저모

인천시의료원에
가천대 길병원 전문의 파견

05 유튜브 들여다보기

머리를 열지 않는 뇌수술
뇌혈관 중재술

08 특집

중앙일보 ‘청춘 이길여’
기획 연재 시리즈 2편



가천대 길병원, 면역항암치료 위한 원스톱 CAR-T 세포치료센터 경인지역 최초 개소

가천대 길병원은 환자의 면역세포를 이용, 맞춤형 치료로 각광받는 ‘CAR-T(카디) 세포치료센터’를 경인지역 최초로 개소했습니다. 센터는 T세포 채집과 보관 처리(GMP) 시설, 환자 동선을 최적화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치료의 안정성과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천대 길병원-가천대학교-이에이트,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병원 구축 협약 체결

가천대 길병원과 가천대학교는 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 트윈 기업 이에이트와 스마트 병원 구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천대 길병원은 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스마트 병원 솔루션을 구축하는데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www.gilhospital.com 진료예약·문의 1577-2299

등록일 2008년 7월 29일 | 등록번호 남동 라 00014 | 발행인 이태훈 | 편집위원 가천대 길병원 홍보실
디자인 (주)케이커뮤니케이션즈

완벽한 GMP 시설, 환자 동선 최적화한 CAR-T 세포치료센터 최첨단 조혈세포이식병동과 시너지 기대



△ CAR-T 세포치료센터 GMP 시설입구



△ 조혈세포이식병동 전경



△ 조혈세포이식병동 내 1인 무균실

CAR-T세포(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는 **환자가 보유하고 있는 면역세포(T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이다. 환자의 혈액에서 면역세포인 T세포만을 채취해 암세포를 찾아내는 물질인 CAR을 장착해 유전자 변형을 거친 뒤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는 치료 방식이다.

화학항암제나 표적항암제 등 외부 물질을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식이 아닌, 환자의 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해 사멸시킨다. 기존 항암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들에게 획기적으로 높은 치료 효과를 보여 **‘꿈의 항암제’, ‘기적의 항암제’**로 주목받고 있다.

CAR-T 세포치료를 위해서는 엄격한 수준의 첨단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

3월 경인지역 최초로 CAR-T 세포치료센터에 대한 식약처 인증을 획득했다.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병원 18층에 위치한 CAR-T 세포치료센터는 T세포 채집과, 채집된 세포를 추출하고 동결, 보관 및 처리할 수 있는 첨단 GMP 시설 등을 최적의 동선으로 배치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까다로운 시설 인증을 한번에 통과할 만큼 체계적이고 완벽한 시스템을 자랑한다.

CAR-T 세포치료센터 바로 아래층에는 국내 최대 무균 1인실을 보유한 조혈세포이식병동이 위치하고 있어 치료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가천대 길병원 조혈세포이식병동은 15개 전 병상이 첨단 감염 관리시스템을 갖춘 1인 무균실로 운영되고 있다.

가천대 길병원 CAR-T 세포치료센터는 혈액내과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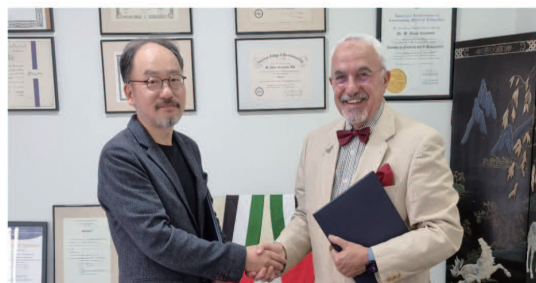
쾌한 교수를 센터장으로, 이재훈 교수, 김혁 교수, 김하나 교수, 변성규 교수 등 혈액내과, 감염내과, 진단검사의학과, 신경과 및 중환자실을 연계한 다학제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한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빠른 병상 배정과 사후 관리를 통해 경인지역 혈액암 환자들이 더 이상 최신, 최적의 치료에 소외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017년 FDA 승인 이후 면역항암치료에 대한 임상 적용이 활발해지면서 2022년부터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높은 비용에 대한 환자 부담이 줄었다. 기존 치료에 불응하거나 재발한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 25세 이하의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등 환자가 적용대상이다.



가천메디컬라이온스 클럽 회원들
남동구 장애인 가정에 장학금 전달 (4/17)

가천대 길병원 직원들이 기금 모아 활동



소화기내과 정준원 교수 개발
AI 내시경 진단기기 국내외 진출 활발

국내 1,2차 의료기관 및 해외 의료기관에도 도입



이시훈 교수

노민수 연구원

내분비대사내과 이시훈 교수
서울국제내분비학술대회 국제협력이사 참여

임상의학연구소 노민수 박사 최우수 구연상

인천지역 공공의료의 중추, 가천대 길병원, 인천시의료원에 심장내과 등 전문의 파견



인천권역책임의료기관인 가천대 길병원은 인천지역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시의료원의 의료진 부족을 해소하고자 심장내과 및 감염내과 전문의를 총 2명 파견하고 있다.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 이경훈 교수는 지난해 3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는 인천시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심장내과 장영우 교수도 2022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시의료원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진료를 하는 등 심장내과 전문의 2명이 인천시의료원에서 1년 넘게 진료를 해왔다. 현재 인천지역의 대표적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시의료원과 인천보훈병

원에는 심장내과 전문의가 없다. 인천시의료원은 2022년 심장내과 전문의가 퇴사하며 의료진을 채용하고자 했지만 구해지지 않았다. 이에 권역책임의료기관인 가천대 길병원에서 전문의를 파견해 공공医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인천보훈병원의 심장내과 전문의도 공석이 돼 심장내과 의료진 파견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

가천대 길병원은 또 감염내과 전문의 1명을 인천시의료원에 파견하고 있다. 가천대 길병원은 코로나19가 확산일로에 있던 2020년 8월 인천시의료원의 요청으로 감염내과 전문의를 파견했다. 의료인력을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 파견하는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인 가천대 길병원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인 인천시의료원이 약 3년 여 간 인천시민들의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가천대 길병원은 2021년 2월 인천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공공보건 의료 전달체계의 중추로, 지역책임의료기관들과 진료협력, 환자 연계, 기술지원 등 다양한 범위에서 역할 한다. 전국 시도 단위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국립대병원이 없는 인천에서는 가천대 길병원이 국립대병원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은 “가천대 길병원은 인천지역암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공공의료 사업을 수행하며 국립대병원이 수행하는 높은 수준의 사명과 책임감으로 지역 필수의료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인천지역암센터-가천대부속 길한방병원, 소야도 방문 지역 주민 대상 의료봉사 실시

암예방 수칙과 암검진 캠페인도 펼쳐 (4/17)



백영민 작가, 가천대 길병원에 작품 기부
척추 치료 후 퇴원하며 이길여 회장에 편지

“치료에 감사, 환자에 희망과 위로 주고파”(4/26)



영상의학실 최정목 파트장
보건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대한방사선사협회 부회장 역임 등 헌신



이후석 진료협력센터 팀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4/12)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부회장, 인천시회장 역임



가정의학과 최수정 교수, 미추홀구보건소서
성인예방접종 주제 강연 (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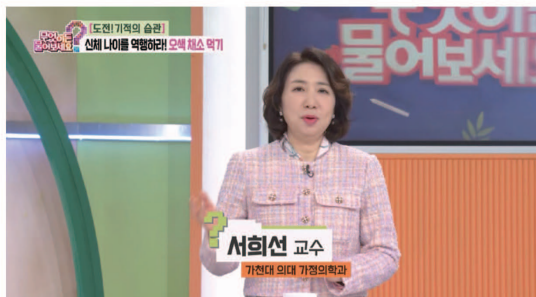
찾아가는 건강강좌 일환



정형외과 이병훈·심재앙 교수팀
무릎관절 외상성 탈구로 인한 치료 연구 (4/13)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서 2년 연속 최우수상

미디어 핫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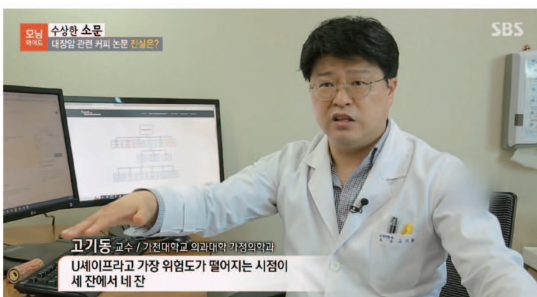


▶ 가정의학과 서희선 교수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26]
채식의 효능과 건강한 섭취 방법

▶ **정신건강의학과 강승걸 교수**

MBN <명사수> [3/27]
치매와 수면의 상관관계



▶ 가정의학과 고기동 교수

SBS <모닝와이드> [3/27]
암 환자 커피 마셔도 될까? 건강한 섭취법은



▶ **직업환경의학과 함승헌 교수**

SBS <모닝와이드> [4/3]
환기가 바이러스를 키운다?



▶ 소화기내과 권광안 교수

EBS <명의스페셜> (4/5)
대장암의 씨앗, 용종(대장내시경)

▶ **외과 백정흠 교수**

EBS <명의스페셜> (4/5)
대장암의 씨앗, 용종(대장암 수술)

▶ **신경외과 김은영 교수**

MBN <뉴스7> (4/11)
파킨슨병, 치매 위험 최대 6배



▶ 가정의학과 김경곤 교수

TV조선 <명의보감> (4/19)
내 몸의 불청객 이소성 지방

▶ **외과 김성민 교수**

TV조선 <명의보감> (4/19)
내 몸의 불청객 이소성 지방



▶ **이비인후과 정주현 교수**

TBN 경인교통방송 (4월 매주 금요일)
알레르기 비염



 심장내과 문정근 교수

중앙일보 <심장이 보내는 경고> (4/27)
계단 1층만 올라도 숨차는 심부전



정신건강의학과 조서는 교수

경향신문 <성인과 소아 ADHD 차이> [3/28]



여성암병원 박홍규 교수

중앙일보 <유방암 바로 알기> [4/1]
여성암 발생 1위 양성 종양 안심 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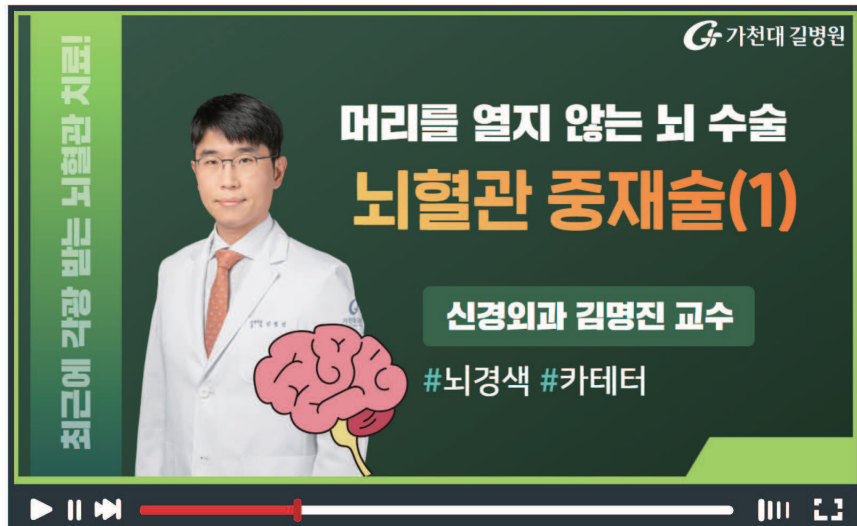


재활의학과 임오경 교수

경향신문 <걷기 운동의 장점> [4/25]
체지방 감소 혈액순환 심폐기능 향상 도움



유튜브 [길병원TV] 핫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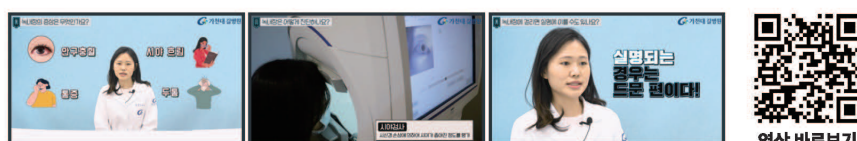
머리를 열지 않는 뇌 수술 뇌혈관 중재술이란!



머리를 열지 않고 뇌혈관을 치료하는 '뇌혈관 중재술'에 대해 신경외과 김명진 교수가 설명합니다. 뇌혈관 중재술은 가느다란 카테터를 삽입해 대동맥을 통해 뇌혈관에 접근한 후 조영제를 주입해 혈관 영상을 보면서 막힌 곳을 뚫어주는 시술법입니다. 중재술로 치료할 수 없는 경우 개두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 중재술이 가능하고, 또 어떤 경우 개두술이 유리한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신경외과 김명진 교수

- ▶ 진료분야 : 뇌동맥류, 뇌졸중, 뇌혈관기형, 모야모야병, 뇌동맥협착
- ▶ 약력 : 대한신경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최우수 논문(2018)
미국 Medical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연수



안구 내부의 압력! 안압과의 전쟁 녹내장 예방과 치료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인 녹내장은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시신경이 손상되면 시야가 좁아져 시야장애를 느끼게 되고 심한 경우 일부분만 흐리게 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되다가 결국 실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녹내장은 정기검진을 통해 최대한 일찍 발견하여 치료하고 진행을 늦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녹내장의 원인과 검사, 치료 방법을 안과 신영인 교수가 설명합니다.

😊 안과 신영인 교수

- ▶ 진료분야 : 녹내장, 백내장, 시신경 질환
- ▶ 약력 : 제12회 EGA Presentation Award 수상
대한안과학회/한국녹내장학회 정회원

더 많은 의학정보를 알고 싶다면? YouTube **길병원TV** 를 검색하세요!

고객의 소리



외상외과 김정욱 교수

어머니가 3월에 머리를 크게 다쳐 길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옥의 순간, 김정욱 교수님을 만났고 늦지 않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천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께서 친절하면서도 이성적으로 어머니의 상황을 설명해주셔서 보호자로서 안심하고 간병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호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주어져 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하00님 보호자



혈액내과 유쾌한 교수

아이가 만19세에 백혈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고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골수이식을 받고, 재발하면서 엄마로서 저는 눈물만 냈습니다. 덤덤히 받아들이는 아이 모습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쾌한 교수님은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잘했으니 또 할 수 있다"며 아이를 위해 다방면으로 치료방법을 찾아주시는 교수님. 저희도 잘 이겨내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황00님 보호자



종양내과 김영생 교수

작년 가을에 폐암 4기 판정을 받고 교수님 권유로 임상시험 치료를 받게 돼 많이 좋아졌습니다. 매번 궁금증이 많은 저를 위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제가 퇴원할 때 누구보다 기뻐해주셨습니다. 많은 고비들이 있었지만 호전돼 퇴원하는 지금,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어수선했던 이 시국에도 환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00님



암센터 9층 김도은 간호사

제가 받은 치료에 대해 환자 입장에서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셔서 불안했던 마음이 놓였습니다. 크고 작은 질문에 항상 웃으면서 상냥하게 대답해주는 모습도 너무 좋았습니다. 수술 끝나고 병실에 돌아왔을 때 제가 환의를 입느라 애를 쓰고 있는데 웃으면서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항상 예쁘고 밝은 김도은 간호사님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강00님



인공지능병원 12층 신유진 간호사

저희 아이가 항암치료를 받을수록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있었는데 간호사님의 친절한 설명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항암치료라 퇴원하면서 간호사님에게 고마웠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박00님 보호자



암센터 16층 황선미 간호사

수술 후 통증으로 인해 진통제를 맞게 되었는데 옆에서 가족처럼 저를 챙기면서 새벽에도 수시로 제 상태를 체크해주셨습니다. 수술 후에 걱정이 많아져서 귀찮을 정도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도 싫은 내색 전혀 없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마음이 놓였어요. 불편함 없이 입원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고마웠습니다.

장00님

친절 우수 직원

2024. 2월 3주차~3월 2주차

부서 I C10AW, C5BW, C7AW, C7BW, A148W, A158W, A168W, A78W, A88W, A98W, M7W, R10W, R7W, I116W, I176W, 내과계집중치료실, 분만실, 심혈관질환, 응급집중치료실, 정형외과외래, 진단검사의학팀, 통원치료센터, 피부과외래

진료부 I 내분비대사내과 김광원, 김병준 산부인과 김석영 신경외과 유찬종 심장내과 문정근, 정욱진 외상외과 김정욱, 이민아 응급의학과 임용수 이비인후과 이주형, 한규철 정형외과 임동섭 종양내과 김영생, 배지홍, 신동복, 안희경 피부과 김희주 혈액내과 변성규, 유쾌한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박정웅

간호본부 I 수술간호팀 김양옥, 이경란, 이혜지, 최경진 외래간호1팀 김민지, 문상희 외래간호2팀 곽수옥, 김혜영, 박성희, 박향숙, 최인혜, 황지선 입원간호1팀 고유리, 김세정, 김혜진, 박영경, 유정민, 이세희 입원간호2팀 김다혜, 김소정, 김유빈, 김유정, 김혜진, 나가희, 문선아, 문승혜, 민선주, 박미정, 박수민, 박태길, 박훈정, 서명지, 선예지, 송민지, 신유진, 안연희, 양은진, 오가을, 유해연, 윤주성, 이다영, 이상록, 이영주, 이윤나, 이주림, 이지수, 이지영, 장명자, 장은빈, 정민경, 정유선, 정환영, 조선영, 주하은, 최영연, 최창순, 허소현, 황지원 입원간호3팀 고혜원, 구가영, 김도은, 김민영, 류다연, 윤솔빈, 이상희, 이예원, 이윤희, 이정은, 이지수, 이춘혜, 전동우, 정진아, 조혜린, 최윤영, 최주이 장기이식센터 조은영 중환자간호팀 김나경, 김보민, 김빛나, 김효경, 서희경, 이정은 특수간호팀 고아영, 신원희 심혈관질환장임재 혈액내과 신은정 종양내과 외래 최원미 소아청소년과 외래 장해지 내분비내과외래 서민애

진료지원 I 방사선종양학팀 유규화, 진아연

행정 I 사회사업팀 임혜지 원무팀 변부경, 주찬희, 우경선 재난방재팀 강미선, 방부연

가천대학교, 세계 최초 '반도체대학' 첫 출범식 가져 반도체분야 기술인재 양성 비전 선포

가천대학교(총장 이길여)가 세계최초로 개설한 반도체대학 첫 출범식을 4월 4일 반도체대학 233호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반도체대학 이상렬 학장과 학과(부)장, 주임교수, 학생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가천대는 지난해 7월 반도체대학 독립단과대학 설립으로 △반도체·전자공학부(전자공학전공, 반도체공학전공, 차세대반도체설계전공)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반도체설계학과를 구성해 330명 규모의 입학정원을 가지고 있다.

이날 출범식은 반도체대학 설립이후 첫 신입생 입학에 맞춰 반도체분야의 미래를 이끌 기술인재 양성의 비전 및 교육, 연구 계획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반도체대학 학생회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학장, 학과(부)장 축사 △기념촬영 △운영 위원회 소개 △학생회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전자공학전공 4학년 조준용 학생회장은 "반도체대학의 출발을 알리는 발대식을 함께할 수 있어 감회가 깊다"며 "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 반도체분야 선도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렬 반도체대학장은 축사에서 "가천대 반도체



대학은 산업체 현장과 대학교육 간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첨단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뛰어난 연구역량과 산업체 경험이 많은 교수진들이 질 높은 교육을 제공, 전문적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가천대는 반도체대학 독립단과대학 신설과 함께

△반도체인프라구축사업 △부처협업형사업(시스템반도체) △성남팰리스아카데미 △조기취업형계약학과 △디스플레이인력양성사업 △첨단산업인재양성부트캠프사업 수주를 통해 정부로부터 운영능력을 인정받으며 반도체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가천대학교, 유엔한국협회와 MOU 체결 제29회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약



가천대학교와 유엔한국협회가 4월 16일 대학 가천관에서 2024년도 제29회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7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가천대학교에서 열리는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를 앞두고 행사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가천대 서원식 대외협력처장, 유엔한국협회 전세훈 자문위원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최기관인 유엔한국협회는 모의유엔회의를 기획, 홍보하고, 주관기관인 가천대학교는 회의 진행에 필요한 회의장 등 시설

제공, 원활한 회의 준비와 진행을 위해 상호간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유엔한국협회는 국제평화 유지, 인권보호, 개발 협력 등 유엔이 지향하는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외교부 등록 공익 사단법인으로, 국내외 교류사업과 청년교육 및 학술사업을 전개하고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와 한중일 3국 청년포럼, 유엔의 날 기념행사 등 다양한 교류행사, 민간 외교 네트워크 허브역할을 맡고 있다.

가천대 서원식 대외협력처장은 "이번 모의유엔회의를 통해 학생들이 국제사회가 마주한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세계시민의식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차관, 가천대에서 현장 간담회 '청년을 위한 디지털 고용서비스 혁신' 강조

이성희 고용노동부차관이 4월 12일 가천대학교를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AI 일자리매칭, 잡케어 등 고용노동부의 디지털 고용서비스 혁신성과를 알리고 청년이 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고용서비스 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

다. 간담회에는 가천대 이길여 총장, 최미리 수석부총장, 가천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학생들은 잡케어 서비스가 진로탐색과 취업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 밝히고 워크넷 기반 잡케어 프로필 정보 연동, 유사희망직종 등을 건의했다.



중앙일보

The JoongAng Plus | Leader & Reader

2024년 3월 6일 수요일 중앙일보

92세니 추억 곱씹기요? 만나면 AI 얘기합니다



'청춘 이길여' 기획 연재 시리즈

92세의 나이에 '우주 최강'이라는 '비현실적 동안' 이길여 가천대 총장의 건강 비결과 교육 철학을 들여보시죠. '젊은 노년' 웰에이징의 비밀, 국내 대표 여성 지도자의 성장 스토리, 따뜻한 카리스마 리더십을 조명합니다.



청춘이길여 페이지 바로가기

이길여 진짜 건강 비결은 '호기심'

신문 10여종, TV 뉴스 꼼꼼히 챙겨
메가 트렌드 파악해 업무에 적용
주변선 "신기할 만큼 미래 보는 눈"
중앙일보 대학평가선 92→27위로



① 조카 부부와 자택에서 '위켄드 콘퍼런스'를 하는 이 총장(가운데). ② 이 총장(오른쪽)은 고이여령 교수(왼쪽) 생전에 서로 교류하며 생명철학 등을 공유했다. [사진 가천대]

다. 1998년 경원대를 인수하고 2000년 총장에 취임한 그는 가천의대와 가천길 대학(전문대)을 통합했고, 경원대와 경원전문대를 합쳤다. 2012년엔 가천의대와 경원대를 통합해 가천대로 일원화했다. 왜 그랬을까. "학령인구라는 말도 없던 20년 전부터 학생 수 감소를 생각했어요. '죽기 전에 10대 사학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이루려면 학생 수가 많은 대학, 그리고 의대를 통해 발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방법은 통합뿐이었다. 가천대는 변화를 멈추지 않았다. 다음은 공개 확대였다.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차세대반도체, 배터리 등 공학 계열 학과를 신설했다. 이 대학 공학계열 입학 정원은 2060명(2024 기준)으로 국내 최다다. 2022년엔 창업을 지원하는 '코코네스쿨'을 만들어 재학생이 창업하면 학점을 인정하고 졸업시켜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1997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경원대는 111개 대학 중 92위로 최하위권이었지만, 2023년 가천대는 27위에 올랐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대학 위상의 큰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이 총장을 오래 지켜본 대학 및 병원 관계자들은 "신기할 만큼 미래를 보는 눈이 있다"고 말한다. 가령 김대중 대통령 시절 초고속인터넷 사업이 추진되자 소프트웨어학과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AI 붐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2020년 국내 최초 AI학과를 만들었고 AI인문대학도 출범을 앞뒀다. 90대 나이에도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한 꾸준한 학습이 비결이다. 소통과 토론은 이 총장의 또 다른 지식 채널이다. 토요일마다 조카 부부인 이태훈 길병원 의원장과 최미리 가천대 수석부총장이 이 총장 집을 찾는다. 오후 5시쯤 저녁을 마치고 차 한잔을 나누고 나면 이른바 '위켄드 콘퍼런스'가 이어진다. 세 사람이 병원과 학교에 대해 한 주간 중요했던 일, 다음 주 업무등에 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여기에 이 총장의 미래를 향한 식견이 더해진다. 이런 콘퍼런스가 팬데믹 전까지는 집 밖에서도 있었다. 고이여령 교수, 김병중(가천대 석좌교수) 화백과의 만남이었다. 김 화백은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생명'으로 통했다"고 회고했다. 이교수는 생전 '생명 자본주의'를 주창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자연이 경제 활동의 자본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꾸준히 펴 온 인물이다. 김화백도 '생명'이라는 주제로 연작을 선보였다. "이 총장님도 생명을 받아내는 의사이자 그 생명이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자라는 점에서 다를 바 없죠. 셋이 만나면 생명 철학과 비전을 많이 공유했습니다." 이 교수가 2019년 암 진단을 받으면서 대화는 더 무르익었다. 생명의 탄생만이 아니라 소멸까지 폭넓게 다뤘다. 김 화백은 "호기심 많은 두 어른이다 보니 '미래는 어떤 것인가'라는 화두만으로 두세 시간이 흘렀다"고 기억했다. "달변가인 이 교수님이 90% 말씀하셨지만, 총장님도 짧게 의견을 내고 아이디어를 주시곤 했죠. 문학·사학·철학이 통하는 사람끼리의 지식향연, 그 자체였습니다."

이도은 기자 lee.doeun@joongang.co.kr

"2022년 말 총장님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보통 그 연세이면 추억을 곱씹거나 건강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총장님 입에서는 AI, 챗GPT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장) 이길여(92) 가천대 총장을 두고 "젊다"고 까지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체력·주름·걸음걸이 같은 외연에만 있지 않다. 오히려 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일수록 "새로움과 내일에 대한 호기심이 진짜 건강 비결"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총장의 집은 작은 뉴스룸이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늘 신문이 수북이 쌓여 있다. 매일 아침 신문 10여 종을 헤드라인이라도 훑는 게 중요한 일과다. 주요 일간지의 경우 사설 읽는 것도 빼놓지 않는

다. 즐겨 보는 TV 프로그램 역시 뉴스다. 지상파 외에 종합 편성 채널이 생기면서 "뉴스 하나가 끝나면 채널을 돌려 다른 뉴스를 보는" 시청 패턴이 굳어졌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이 총장이 뉴스 마니아를 자처하는 건 다양한 분야의 이슈에서 메가 트렌드를 파악하고 업무에 적용하려는 목적에서다. 실제 아침 신문에 '전기차 시대에 대학은 내연기관을 가르친다'는 기사가 나온 날, 그는 곧장 관련 학과 회의를 소집해 '우리는 뭘 가르치는지' '우리는 잘하고 있는지' 진단해 보라고 지시했다. 좀 더 깊이 있는 주제일 땐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세미나를 하기도 한다. 미래를 보고 일을 벌인 대표적 사례가 가천대 통합이